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정서표현갈등 및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은 주

2013년 8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정서표현갈등 및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지도교수 박 정 환

김 은 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김은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년 8월

<국문초록>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정서표현갈등 및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김 은 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정 환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녀의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 전략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정서 표현갈등과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정서표현갈등 및 갈등해결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5개 중학교의 1학년 남, 여 학생 568명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 검사 도구를 실시하고, 그중 514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측정도구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검사를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하고 민혜영(1990)이 번역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척도 중 청소년 자녀용 설문지(PACI)를 검사도구로 사용하였고, 정서표현갈등 검사를 위해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 본 논문은 2013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타당화된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 척도(AEQ-K)를 사용하였다.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은혜, 고윤주, 오원정(2000)의 갈등해결전략 척도를 사용하였고,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s 18.0에 의해 빈도분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부모-자녀 간 문제형 의사소통은 정서표현갈등과 정적상관을,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은 정서표현갈등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중 협력 및 절충전략, 회피전략과 정적상관을, 부모-자녀 간 문제형 의사소통은 협력 및 절충전략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정서표현갈등 및 갈등해결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제형, 모-문제형 의사소통이 정서표현갈등의 하위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부-문제형, 모-개방형 의사소통이 정서표현갈등의 하위요인인 관계관여적 양가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개방형, 모-개방형 의사소통은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요인인 협력 및 절충전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건강한 심리적 안정과 친구 간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개방적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실질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4
II. 이론적 배경	5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5
2. 정서표현갈등	9
3. 갈등해결전략	15
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19
III. 연구방법	22
1. 연구대상	22
2. 연구도구	23
3. 연구절차	25
4. 자료처리 및 분석	26
IV. 연구결과 및 해석	27
1.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27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의 상관관계	28
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정서표현갈등에 미치는 영향	30
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33

V. 논의 및 결론	38
참고문헌	45
Abstract	52
부 록	54

표 목 차

표 1. 인구학적 통계	22
표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23
표 3. 정서표현갈등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24
표 4. 갈등해결전략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25
표 5.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27
표 6.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의 상관관계	28
표 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정서표현갈등(자기방어적 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31
표 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정서표현갈등(관계관여적 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32
표 9.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협력 및 절충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33
표 10.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회피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 귀분석	34
표 1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지배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 귀분석	35
표 1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양보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 귀분석	36

그림 목 차

그림 1. Rahim의 갈등척도 모델	17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욕구를 충족하며 상대방을 이해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정서적인 면을 포함하며, 관계의 형성은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서표현은 단순한 감정표출을 의미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중요수단이며 개인의 적응과 대인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이귀선, 2002).

Rogers(1957)는 자신의 느낌을 잘 알아차리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고, 느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최해연, 2007, 재인용). 그러나 사람들은 실제로 정서를 표현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표현을 억제하고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정서표현 자체에 대한 억제보다는 정서표현에 있어 내면적으로 갈등하는 경향이 부적응을 더 잘 예언해주는 변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타나면서 King과 Emmons(1990)는 정서적 표현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갈등을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이라는 개념으로 제안하고, 정서적 행동을 그 행동 이면의 목표와 신념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서표현 양가성’이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과 정서적으로 표현하기는 했으나 그렇게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만성적 경향성을 말하며 정서표현과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안되고 있다(King & Emmons, 1990). 여러 연구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공감이나 사회적 지지를 덜 받는다고 지각하며(Emmons & Colby, 1995), 심리적 부적응

및 신체질환이 많으며, 문제 중심적 대처보다는 정서중심적 대처나 미숙한 방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한정원, 1997).

대부분의 정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정서는 환경 내에서 분화되며 발달하기 때문에 가정환경은 정서발달의 외적요인으로 중요하다(전정미, 2005). 더욱이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는 만큼 자녀의 정서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Satir(1983)에 따르면 자녀에게 있어서 의사소통은 타인과 맺는 관계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큰 단일요소가 된다고 하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본질적인 수단으로써 의사소통이 갖는 위치를 고려할 때,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하는 의사소통 양식에 따라 자녀의 정서적 능력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영주(2004)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가 전달되며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와 행동, 정서의 내면화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경험은 자녀의 심리적 안녕과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형성하기 위한 바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서표현에 대한 개인 고유의 양식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들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며, 정서표현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써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연구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한편, 청소년기에는 정서가 매우 강하고 변화가 심한 정서적 특성과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필요한 심리·사회적 지지를 얻고자 하는 사회적 특성을 갖는다(홍봉선, 남미애, 2000). 청소년기의 친구관계는 자기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가족관계와 달리 자발적으로 맺어지는 친구집단은 쉽게 맺어지고, 종결될 수 있으므로 친구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이야말로 청소년기에 획득해야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이은혜, 고윤주, 오원정, 2000). 그러므로 청소년의 대인관계 모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갈등은 많은 주목을 끄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 중에 겪을 수 있는 보편적

인 현상으로 갈등상황은 청소년 시기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 최유진, 유계식(2007)은 부정적으로 간주되어 왔던 갈등이 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하느냐, 비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하느냐에 대해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고, 특히 청소년기는 갈등해결을 학습하기에 최적의 시기이며, 이때 형성된 갈등해결 전략이야말로 성인으로 성장하였을 때,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박금남(2001)은 청소년기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점으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지니며 정서적 불안이나 긴장, 갈등 등을 경험하는데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대화에서 학습한 의사소통 유형이 갈등해결전략에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나타나므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갈등관리 유형에 미치는 정도를 예측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갈등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면 관계에서 변화와 성장이 촉진되며, 개인의 적응과 발달에도 도움이 되지만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오해나 관계단절 등의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친구 간의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청소년기 대인관계의 유지와 사회적 적응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와 같이 청소년기 대인관계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서표현갈등과 갈등해결전략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발달적 측면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의 관련성을 연구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정서표현갈등 및 갈등해결전략의 상호관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 자녀들의 심리적 안녕과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소년 및 부모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정서표현갈등 및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를 파악하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의 하위요인이 정서표현갈등과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다루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서표현갈등,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정서표현갈등 및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정서표현갈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정서표현갈등(자기방어적 양가성, 관계관여적 양가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협력 및 절충, 회피, 지배, 양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의 관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정서표현갈등 및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 장에서는 이론적 기초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념

인간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생활은 의사소통 경험의 연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이란 상호작용(interaction)과 교류(transaction)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를 교환할 때 일반적으로 언어행동에 사용하는 것과 비언어적 행동에 사용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Satir, 1983). 또한 의사소통은 둘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간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감정을 교환하여 형성된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의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하며, '상호간의 공통된 이해'가 중심이 된다(민하영, 1991). 이처럼 의사소통은 인간관계 성립에 필수적 요소로써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의 전달과 서로간의 사고와 행동, 정서에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교류과정으로 가족구성원들 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인간관계 중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처음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자녀 간의 관계이고 첫 환경이 가정임을 생각해 볼 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자녀가 배우는 의사소통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조수경, 2009). 부모-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기초가 된

다. 이영주(2004)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가 전달되며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와 행동, 정서의 내면화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최유진, 유계숙(2007)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부모-자녀 간의 감정을 정화시켜 서로의 정보교환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자녀의 사회화 및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카운슬러가 하는 것처럼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 그 기술을 체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더욱이 청소년기에는 정서가 매우 강하고 변화가 심한 정서적 특성과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필요한 심리·사회적 지지를 얻고자 하는 사회적 특성을 갖는다(홍봉선, 남미애, 2000).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다 같이 서로 상충되는 감정을 갖게 되고 더욱 많은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수용적이면서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의사소통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청소년기 자녀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의 욕구 및 안정감 등을 획득할 수 있고 친밀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자녀의 사고, 행동,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청소년기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겨진다.

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학자들마다 그 유형을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데, 의사소통 유형은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메시지의 전달방식이나 전달과정에 관한 것으로 ‘무엇이 말하여지는가’ 보다는 ‘어떻게 말하여지는가’에 대한 것이다. 즉, 상호간의 밀접한 감정교류와 개인의 생각이나 관심 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전달방식이라 할 수 있다(이진용, 1990).

Bearbien(1970)은 청소년의 대화행동과 어머니의 반응을 관련지어 쌍방 개방형, 자녀차단-모 개방형, 자녀개방-모 차단형, 쌍방 차단형으로 분류하였다.

바람직한 의사소통 유형으로 쌍방 개방형은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순수성의 태도 등의 촉진적 인간관계 변인의 개념이며 자신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표현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나아가 인간적인 잠재능력 까지도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Gordon(1975)은 부모 효율성 훈련(PET :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프로그램에서 효과적인 부모가 되기 위한 의사소통기술을 강조했다. 그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을 I-message와 You-message로 구분하였다. I-message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부모의 느낌이나 입장을 자녀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자녀도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I-message는 개방적인 유형으로 부모-자녀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You-message는 설교, 경고, 명령, 비난 등 자녀의 행동에 대해 평가나 비평을 하는 의사소통 유형으로 자녀는 부모에 대해 반감이나 저항감을 갖게 되기 쉽다.

Satir(1983)는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일치형의 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의사소통 유형을 구분하였다. 회유형은 자신의 내적 감정이나 생각은 무시하고 타인의 의견에 맞추려고 애쓰는 유형이고, 비난형은 타인의 의견을 비난, 무시하며 통제하는 유형이다. 초이성형은 극단적인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고 분석 및 논리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가 어려운 유형이며, 산만형은 혼란스러우며 부적절한 말을 하고 의미 없는 농담을 주고받는 것이 관심의 표현이라 여긴다. 일치형은 가장 이상적인 의사소통으로 의사소통 내용과 내면의 감정이 일치하는, 솔직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타인과 원만하게 교류하고 자존감이 높으며 심리적·신체적으로 건강하다.

한편, Barnes와 Olson(1982)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을 개방적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분하고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는 척도인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이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서로의 경험, 욕구, 사실, 감정을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말한다. 문제형 의사소통은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며, 부모로부터 부정적이고 비난적인 표현을 많이 경험하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말한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볼 때 의사소통은 크게 기능적인 특성을 가진 유형과 역기능적인 특성을 가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의사소통유형 분류 중에서 Barnes와 Olson(1982)의 의사소통유형은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자녀와 부모사이의 의사소통형태를 분류하는데 적합 할 뿐만 아니라 하위요인인 개방형, 문제형은 우리나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을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분한 Barnes와 Olson(1982)의 분류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선행연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특성과 행동적 특성 및 대인관계 성향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서적, 심리적 특성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김경희, 2005; 박시현, 2003), 어머니와 촉진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경우, 자녀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극복하여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느낄 줄 알게 된다고 하였다(이영주, 2002). 그러나 부모가 비난하고 평가하는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 경우, 자녀는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내면적 갈등을 많이 겪게 된다(신자은, 2002).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양영미(2003)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정서지능과 의미 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특히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정서표현은 부모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의미 있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자녀의 외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사회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개방적인 자녀는 또래 관계에 잘

적응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심희옥, 김영미, 2000), 사회성이 높게 나타났다(김경원, 1999). 그러나 부모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는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김성연, 2003), 외톨이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권영애, 2007). 이영주(2004)는 연구에서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특히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할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장영수(2008)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버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요인 중 협력 및 절충전략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부모의 의사소통이 개방형일 때, 그 상관관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어있다. 또래관계의 질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부모-자녀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친밀감, 갈등해결, 만족도 등의 또래관계의 긍정적 요인은 증가하고, 갈등대립, 고립, 불만족과 같은 부정적 요인은 감소하였다(정정화, 2008).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부모가 많은 시간 경제활동에 힘을 쏟고 입시, 출세 위주의 자녀교육에 사로잡혀 대화가 단절되거나 패쇄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정이 많다(민하영, 1991).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과정상 더욱 수용적이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심리, 정서적 특성과 사회성 발달 및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자녀의 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외적인 적응영역에서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대인관계 속에서의 모습을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자녀의 정서 표현갈등 및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 정서표현갈등

가. 정서와 적응

정서(emotion)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끔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내적 감각과 외적 표현을 포함하며(김인자 역, 1984), 어떤 대상 혹은 상황을 지각하고 그에 따르는 생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복잡한 상태로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김경희, 1995). Darwin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특정 표정과 자세의 표현이 갖는 유용성에 대해 관찰하면서 정서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 순응적으로 살도록 행동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김경희, 1995). 이렇듯 정서는 인간의 적응과 관련하여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행동을 조절하도록 하는 개인적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서는 인간의 삶과 적응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서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정서의 표현과 관련한 연구에서 정서의 표현이 인간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으며, 정서표현 억제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경험된 정서를 관리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억제를 해왔던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은 높게 경험하고 정적 감정은 낮게 경험하며, 안녕감 수준이 낮고 사회적 적응을 어려워함이 확인되었다(Gross & John, 2003; Gross & Levenson, 1997). 국내의 연구에서도 정서를 잘 느끼지 못하고 기질적으로 억압하는 사람들은 심리적 안녕감이나 신체적 건강에 문제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고(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정환, 1997),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인 분노의 억제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유의미한 신체증상이 나타났다(류준범, 2001).

이와 더불어 정서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는데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에서 정서억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친밀한 대인관계가 적고, 타인에게 호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다(Gross & John, 2003). 한정원(1997)은 개인이 긍정적인 정서나 친밀감을 잘 표현하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 획득이나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얻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하면서 정서표현성이 대인관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정서를 억제하지 않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개인의 적응 및 원만한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정서표현은 단순한 감정표출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개인의 적응 및 대인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이귀선, 2002). 이처럼 정서는 표현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선주(2002)의 연구에서도 아동이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할수록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지고 이들은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 및 유지한다고 보고하였다. 각 개인이 대인관계 속에서 느끼고 표현하는 정서적 성향은 그 개인이 맺는 관계양식의 중요한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진희, 2007).

이상에서와 같이 정서는 개인의 적응과 사회적 기능의 역할을 하며 정서표현 성향은 개인의 신체 혹은 심리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인관계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서는 환경 내에서 분화되고 발달하기 때문에 가정환경은 정서발달의 외적요인으로 중요하다(전정미, 2005). 따라서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적 성향에 중요하게 작용하리라 여겨진다.

나. 정서표현갈등

정서표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정서표현의 특성과 긍정적인 기능이 강조되어 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서표현 억제에 어떤 측면이 역기능적인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King과 Emmons(1990)는 정서표현에 관련된 개인의 노력은 특히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렇지 않은 욕구가 양가성을 일으키기 쉽다고 제안했다. 왜냐하면 감정은 정직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표현하는 것은 취약함을 의미하는 문화적인 양면가치가 개인 내면의 심리적 과정의 표현에 대한 양가성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격성이나 분노, 또는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의 표현은 개인과 그가 소속된 집단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으로서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정원, 1997). 즉, 정서표현 부족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표현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이 욕구가 사회규범이나 개인의 다른 목적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에 심리적·신체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Pennebaker, 1985). 또한 King과 Emmons(1990)도 억제나 강한 표현 모두 생리적 각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정서표현이 적더라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의 사람들과 억압되고 긴장

되어 정서표현이 감소된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정서표현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개념을 제안하고, 정서적 행동을 그 행동 이면의 목표와 신념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서표현양가성이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King & Emmons, 1990). 강렬하게 경험되는 양가성이란 갈등의 한 형태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의 느낌이 동시에 혹은 빠르게 교차하는 것이며, 한 대상을 원하면서 동시에 원하지 않는 접근-회피 갈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Emmons & Kaiser, 1995).

인간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욕구나 표현을 억제 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하고 적응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정서표현을 하리라 기대하며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정서표현을 조절하거나 억제하며, 때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적인 상태를 경험한다(최해연, 2007). 그런데, 이런 억압적 양식이 범상황적이고 경직된 형태로 나타난다면 이는 개인의 적응을 저해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면서 정서를 관리하거나 통제하는데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개인은 힘든 내적 긴장 상태에 수시로 처하며, 현재의 경험과 충분히 접촉하지 못하고, 감정을 유발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주위로부터 지지나 수용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다(Mongraine & Vettese, 2003).

King과 Emmons(1990)는 정서표현에 대해 갈등하는 정도에 개인차가 있다는 전제 하에 정서표현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개발하였다. 정서표현양가성 척도는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적극적으로 억제하거나, 정서를 표현한 것을 후회하거나, 원하지 않는 정서를 표현하는 등 욕구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내용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정서의 표현성 자체보다 표현에 대한 갈등과 억제가 문제가 된다는 주장은 이후의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정서표현에 양가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공감이나 사회적 지지를 덜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으며(Emmons & Colby, 1995), 정서표현갈등이 높을수록 비판/통제, 냉담/의심, 회피/고립, 비주장/소심 등 바람직하지 않은 대인관계 특성이 나타났으며(안희애, 2006; 변영진, 2005), 미성숙, 자기억제, 갈등 회피적 방어기제 등의 부적응적인 자아방어기제를 더 많

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김우석, 2004).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정서표현갈등이 꼭 부정적인 결과만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Shu(1994)의 비교문화 연구에서 미국, 중국, 한국의 대학생들의 정서표현갈등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을 비교한 결과 집단주의 문화권에 사는 학생들의 경우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수준이 개인주의 문화권에 사는 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엄정은, 2010, 재인용). 정서억제와 관련한 이은경과 서은국(2009)의 연구에서도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정서억제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상관을 비교한 결과 한국 학생들은 미국학생들보다 일상생활에서 정서를 더 많이 억제 하였지만 정서표현 억제를 덜 어렵게 여겼으며, 정서억제와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문화마다 정서표현갈등의 의미와 기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 원망이나 욕구를 추구 및 내적 감정의 표현은 자율적 인간의 당연한 권리라고 본다(조공호, 2003). 반면 한국의 문화는 유교적 집단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관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는 중요한 덕목이며, 체면과 공손함을 중시하며, 강한 정서의 외적 표현은 매우 억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최상진, 1997). 또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기 보다는 상황적 적합성을 찾고 상대방의 욕구를 배려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된 상호작용 방법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적응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최상진, 2000). 그러므로 이러한 정서표현규범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빈번히 느끼더라도 이것이 개인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최해연, 2007).

이상에서 정서표현갈등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억제하고 갈등하는 것으로 청소년기 자녀들의 심리적 안녕과 사회적 적응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의 갈등, 정서표현갈등, 정서표현양가성 등과 같은 다양하게 표현되어지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와 개념이 같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연구하였다.

다. 정서표현갈등의 하위요인

우리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데 갈등하고 억제하는 상황이라면 두 가지 경우를 떠올릴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했을 때 공감되지 못하고 거부되거나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로 우리는 표현하기를 망설이고 억제할 것이다. 이런 상태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려는 ‘자기방어적’인 동기가 작용하여 정서표현에 대해 양가적이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정서표현이 상황과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고려하는 경우로, 이는 전자와 적응상의 함의가 다를 것이다(최해연, 2007).

최해연과 민경환(2007)은 한국 문화적 맥락에서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King & Emmons, 1990)를 타당화 하고, 정서표현에 대한 무능감과 정서표현의 결과로써 거부되는데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자기-방어적 양가성’ 요인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노력을 반영하는 ‘관계-관여적 양가성’ 요인으로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한 다른 이해를 제공하였다. 정서표현 양가성의 자기-방어적 요인은 억제적 정서조절과 경험적 회피 모두와 높은 상관을 보이면서, 불안과 우울 등 모든 심리증상들과도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 관계-관여적 요인은 억제적 조절양식과는 높은 상관을 보였지만 경험적 회피와는 관련성이 떨어졌고 강박증, 우울, 대인관계 예민성에서 약한 상관을 보일 뿐 그 외 다수의 심리증상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즉, 정서표현갈등이 전반적으로 부적응적 개인차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억제하는 성향으로 한국 문화에서 적응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최해연, 2007).

이상에서 정서표현갈등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대한 두려움을 갖는 자기방어적 측면과 상대를 배려하고 관계를 보호하려는 관계 지향적 측면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갈등이 청소년기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 및 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3. 갈등해결전략

가. 갈등해결전략의 개념

갈등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인간이 겪게 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대인관계 측면에서 Deutsch(1973)는 갈등의 개념을 서로 간의 상호교류 과정에서 한 쪽의 활동이 상대의 활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긴장을 초래하여 상대방이 불리하게 여겨질 때 발생하는 일상적인 사건으로 정의하고, 적대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에서도 흔히 발생한다고 하였다(배선영, 2000, 재인용).

사람들은 갈등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하여 되도록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갈등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개인의 발달에 있어 대인관계와 사회적응에 중요한 요소로 긍정적인 면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Corcoran과 Mallinckrodt(2000)도 갈등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정의하지 않고 변화와 성장의 자연적 과정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했다. 갈등 자체가 정신생활을 혼란하게 하고 내적 조화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변화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최태진, 2006, 재인용).

청소년기의 친구관계는 자기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대인관계 기술과 관련하여 갈등은 많은 주목을 끄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유진, 유계식(2007)은 부정적으로 간주되어 왔던 갈등이 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하느냐, 비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하느냐에 대해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고, 특히 청소년기는 갈등해결을 학습하기에 최적의 시기이며, 이때 형성된 갈등해결 전략이야말로 성인으로 성장하였을 때,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최태진(2006) 역시 청소년기의 갈등은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며 나아가 창의적 문제해결 방식을 습득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 습득된 많은 습관들은 성인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갈등해결방식의 학습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Pollard(1985)는 갈등해결전략이란 서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자기의 이해를 방어하고 고양시키기 위해 갈등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성취하

는 방식들을 말한다고 하였다. Canary, Cupach와 Messman(1995)에 의하면 갈등과 갈등해결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갈등해결은 다른 상호작용보다 관계의 특성을 더 잘 밝혀주고, 둘째, 관계를 형성하면서 갈등을 겪게 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리적·신체적인 해를 입힐 수 있어 갈등해결방법이 연구되어야 하며, 셋째, 대인간 갈등은 개인의 발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한혜원, 2003, 재인용).

청소년 초기에 이르면 청소년들은 부모형제보다도 친밀한 친구로 구성된 또래 집단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은혜, 고윤주, 오원정(2000)은 가족관계와 달리 자발적으로 맺어지는 친구집단은 쉽게 맺어지고, 종결될 수 있으므로 친구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이야말로 청소년기에 획득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했다. 따라서 청소년의 대인관계를 맺는 모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친구들 간의 갈등해결전략을 생각할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갈등해결에 적합한 기술과 전략을 파악하는 능력은 아동 중기에서 청소년기까지 발달한다. 갈등을 발달적 측면에서 연구한 Selman(1980)은 사회적 조망수용에 따른 갈등해결을 설명하면서 청소년초기에는 갈등을 더욱 추상적으로 파악하여 친구와의 갈등은 필수불가결하며 갈등이 잘 해결되었을 때는 둘 사이의 관계가 강화된다고 믿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갈등 자체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여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갈등해결전략은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형태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갈등해결전략은 청소년기 습득해야 할 대인관계 기술로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여겨진다.

나.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요인과 선행연구

갈등해결의 유형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갈등해결유형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Blake와 Mouton(1964)은 대인 간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문제해결, 완화, 강요, 회피, 타협의 5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Rahim(1983)은 Blake와 Mouton(1964)의 2차원 도식에 기초하여 조직체 내에

서 대인관계의 갈등해결전략을 측정하는 척도(Rahim Organizational Conflict Inventory-II : ROCI-II)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개인이 갈등상황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와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의 두 차원에 따라 갈등해결전략을 협력(integration), 양보(obliging), 지배(dominating), 회피(avoiding), 절충(compromising)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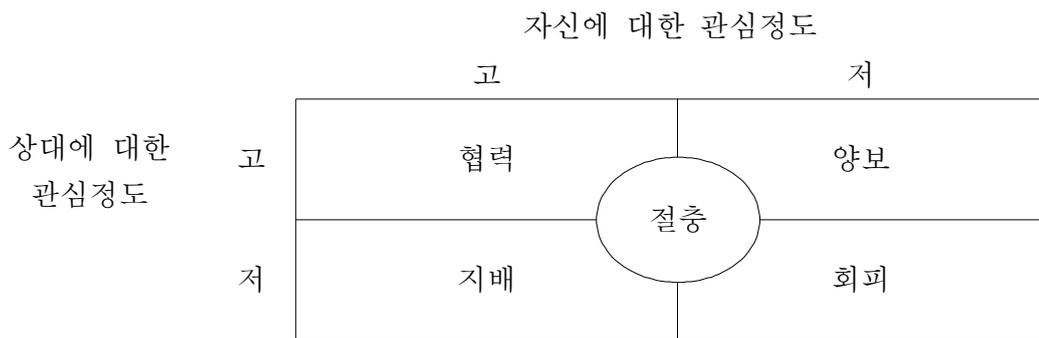


그림 1. Rahim의 갈등척도 모델

이 모델에서 ‘협력’은 자신과 상대 모두에 대하여 관심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양쪽이 수용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회피’는 자신과 상대 모두에 대하여 관심의 정도가 낮은 경우이다. ‘양보’는 자신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낮고 상대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서로의 차이를 최소화하려 시도하고 상대의 관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배’는 자신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높고 상대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승-패 지향적이거나 자신의 입장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절충’은 양쪽이 모두 어느 정도 썩은 포기하고 상호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성취하는 것으로 양쪽 모두가 관심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Hammock, Richardson, Pilkington와 Utley(1990)는 협력과 절충을 나누는 방식은 공적인 사회관계에서는 뚜렷하게 구분되지만, 가족이나 친구관계

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그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다고 하였다(한혜원, 2003, 재인용). 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은혜, 고윤주와 오원정(2000)은 갈등해결 전략의 유형을 협력과 절충을 하나로 묶어 네 가지 방식으로 개념화 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협력’ 과 ‘절충’을 하나의 방식으로 묶어 네 가지 방식으로 개념화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갈등해결전략은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지만 ‘협력 및 절충’ 전략은 친구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예언하고(이은혜, 2000), 대인관계에서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이라고 하였다(김표선, 2004). ‘회피’ 전략에 대해 배선영(2000)은 친구의 지원과 정적상관을 보여 갈등을 회피하는 행동자체가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시키는 건설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상호적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잠재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안경숙(2001)은 회피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은 친밀하고 깊은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피상적으로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배선영(2000)은 절충 및 협력, 회피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우정관계에서 갈등이 낮고, 지배전략을 사용할수록 갈등이 높다고 하였다. 김표선(2004)은 인기아는 다양한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나 무시아는 회피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서적 안정, 친밀감, 인정이 높을수록 절충 및 협력, 양보전략을 사용하나 교제의 즐거움, 도움이 낮을수록 회피전략이나 지배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혜원(2003)은 아동의 정서 표현 의도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보호적 의도와 절충 및 협력 전략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어, 아동이 정서를 표현할 때 자기보호적 의도를 많이 나타낼수록 친구간의 갈등에서 절충 및 협력전략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낮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갈등해결전략은 청소년기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갈등해결전략이 사회적 기술의 하나로써 부모와의 의사소통과의 관련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정서표현갈등

대부분의 정서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 일어나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서가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자녀가 태어나고 첫 환경이 가정임을 생각해 볼 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자녀가 배우는 의사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조수경, 2008). Satir(1983)는 의사소통의 정서나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가족체계가 의사전달을 통하여 표현되며 의사소통의 본질은 감정차원이라 보았다. Satir가족치료자들이 주장한 가족치료의 목적에서도 정서적으로 메마른 가족들이 깊은 내면에 숨겨진 자신의 감정을 느끼도록 하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내면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이 자기 속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결국 가족 내에서의 의사소통이 그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특히, Hamilton(1988)은 초기관계경험은 환경이나 대상의 특성을 내면으로 받아들여 자기의 특성으로 변형시키는 심리적 기제인 내면화 과정을 거쳐 세상과 타인에 대해 기대하고 반응하는 틀이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내면화된 표상은 환경을 지각하고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서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반응을 동기화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한혜원, 2003, 재인용).

이영주(2004)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가 전달되며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와 행동, 정서의 내면화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촉진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녀의 마음이 이해되고 수용될 때 자녀의 성격적 측면과 대인관계에서 사교적이고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극복하여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느낄 줄 알게 된다고 하였다(이영주, 2002).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영미(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정서지능과 의미 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특히 정서지능의 하위요

인인 정서표현은 부모의 문제형 의사소통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노옥경(2003)은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대인관계 취약성을 낮춰주며, 어머니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는 대인관계의 긍정적인 정서 만족도가 높고, 아버지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부정적 정서가 높다고 하였다. 반면, 역기능적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연구한 신자은(2002)은 부모가 비난하고 평가하는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는 양육행동을 할 경우 자녀는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내면적 갈등을 많이 겪게 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조수경(2007)의 연구에서도 역기능적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정서표현갈등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원영(1983)은 부모의 강압적이며 권위적인 양육행동과 같은 통제적 태도는 아동의 정서적 해독능력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부모의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여 공격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Buck(1984)은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만일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게 되면 자신의 정서를 숨기도록 학습되어진다고 지적하였고, 노지영(2009)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정서표현갈등은 부모의 비지지적인 반응에 의해 예언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정서 발달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정서표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의 환경적 요인 중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살펴보고 한다.

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이루어 나간다.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는 유능한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고, 또래관계의 긍정적 요인을 증가시키고(정정화, 2008) 원만한 또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심희옥, 김영미, 2000). 백윤미(2005)는 부모와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하위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부모-자녀 간의 촉진적이고 수용적인 의사소통이 건

강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선영(2000)은 협력 및 절충, 회피전략을 사용할수록 우정관계에서 갈등이 낮고, 지배전략을 사용할수록 갈등이 높다고 하였다. 김표선(2004)은 인기아는 다양한 해결전략을 사용하나 무시아는 회피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또한 정서적 안정, 친밀감, 인정이 높을수록 협력 및 절충, 양보전략을 사용하나, 도움이 낮을수록 회피전략이나 지배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한혜원(2003)은 아동의 정서표현 의도와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보호적 의도와 협력 및 절충전략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어 아동이 정서를 표현할 때 자기보호적 의도를 많이 나타낼수록 친구간의 갈등에서 협력 및 절충전략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낮다고 하였다. 또한 친구 간에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절충 및 협력전략과 정적 상관을 보여(정남선, 2007),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영향을 추측 할 수 있다. 한편, 정미현(2003)은 부모가 자녀를 성취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로 양육할수록 절충 및 협력전략을, 비합리적인 태도로 양육할수록 회피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민영(2006)은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과 의사표현을 격려하는 행동통제를 보일수록, 협력 및 절충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은 부모의 양육특성과 관련되어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특성은 자녀의 친구 간 갈등을 긍정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부모의 양육특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도 친구 간 갈등 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내 소재하는 5개 중학교의 1학년 남, 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568명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정서표현갈등 척도와 갈등해결전략 척도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무응답과 불성실한 답변을 한 설문지를 제외한 514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분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인구학적 통계 (n=514)

변인	구분	n(%)
성 별	남	256(49.8)
	여	258(50.2)
계		514(100.0)

2. 연구도구

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본 연구에서는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하고 민혜영(1990)이 번역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척도 중 청소년 자녀용 설문지(PACI)를 검사도구로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본 검사지는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방형 의사소통 10문항, 문제형 의사소통 10문항,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다.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

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open family communication)은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하위요인인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problem in family communication)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소통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혜영(1990)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α)는 전체적으로 .85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부 개방형 .90, 부 문제형 .74, 모 개방형 .92, 모 문제형 .77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이 측정하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의 하위영역과 비슷하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별 문항과 본 연구의 Cronbach α 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수	문항	Cronbach α	
			부	모
개방형	10	1,3,6,7,8,9,13,14,16,17	.90	.92
문제형	10	2,4,5,10,11,12,15,18,19,20	.74	.77

나. 정서표현갈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 척도(AEQ-K)를 사용하였으며, Likert식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 척도(AEQ-K)는 King &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 양가성 질문지(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 28문항을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타당화한 것이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표현 불능감과

표현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자기-방어적 양가성’ 요인, 인상관리 및 대인관계 민감성과 관련된 행동통제를 반영하는 ‘관계-관여적 양가성’ 요인,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해연과 민경환(2007)의 연구에서 보고한 AEQ-K의 전체 신뢰도 지수(Cronbach α)는 .90이고 하위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 요인의 신뢰도 지수(Cronbach α)는 .89, ‘관계-관여적 양가성’ 요인의 신뢰도 지수(Cronbach α)는 .78이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 지수(Cronbach α)는 .90이고, 하위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 요인의 신뢰도 지수(Cronbach α)는 .90, 관계-관여적 양가성 요인의 신뢰도 지수(Cronbach α)는 .79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갈등의 하위영역을 더 잘 나타낸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정서표현갈등의 하위유형별 문항과 본 연구의 Cronbach α 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정서표현갈등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수	문항	Cronbach α
자기방어적 양가성	13	1,2,3,4,5,6,7,9,10,11,12,14,15	.90
관계관여적 양가성	8	8,13,16,17,18,19,20,21	.79
전체	21		.90

다.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척도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이은해, 고윤주, 오원정(2000)의 청소년용 갈등해결전략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Rahim(1986)의 갈등해결전략 척도에 기초하여, Mendelson, Goldbaum과 Semeniuk(1995)가 제작한 McGill 친구관계 질문지 갈등해결 방식(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Conflict Resolution Styles)을 번안한 것이다. 본 척도는 4가지 전략(협력 및 절충, 회피, 지배, 양보)에 대하여 각각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이 측정하는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영역과 비슷하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은혜 등(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α)는 각 하위척도별로 .70에서 .7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협력과 절충, 회피, 지배, 양보 각각 .69, .53, .51, .70이었다. 갈등해결 전략 유형별 문항과 본 연구의 Cronbach α 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갈등해결전략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수	문항	Cronbach α
협력 및 절충	4	2, 5, 6, 9	.69
회피	4	1, 8, 12, 15	.53
지배	4	3, 10, 13, 16	.51
양보	4	4, 7, 11, 14	.70
갈등해결전략 전체	16		.76

3. 연구절차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정서표현갈등과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거쳤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과 관련된 선행연구 논문들의 분석과 참고서적을 고찰하여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집단을 선정한 후 검사의 실시는 표집대상 학교별로 해당학교 교사를 검사협조자로 선정하고 연구자가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검사하거나 협조자를 직접 만나서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 실시 전에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중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본 설문의 응답에는 정답이나 오답이 없

으며 실제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서표현갈등, 친구 간 갈등 해결전략 척도질문지를 실시하였고, 설문은 대략 15~20분이 소요되었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정서표현갈등(자기방어적 양가성, 관계관여적 양가성), 갈등해결전략(협력 및 절충, 회피, 지배, 양보)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해 얼마만큼의 상대적 설명력을 갖는지 알아보려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영역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5.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n=514)

변인	하위영역	평균	표준편차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개방형	3.33	.78
	부-문제형	2.53	.59
	모-개방형	3.71	.80
	모-문제형	2.51	.64
정서표현갈등	자기방어적 양가성	2.85	.72
	관계관여적 양가성	3.26	.64
	정서표현갈등 전체	3.00	.60
갈등해결전략	협력 및 절충	3.46	.62
	회피	3.20	.61
	지배	3.09	.57
	양보	2.98	.65

위의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중에서 모-개방형 의사소통 평균이 3.71, 부-개방형 의사소통이 3.33으로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평균이 문제형 의사소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개방형 의사소통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표현갈등에서는 관계관여적 양가성 하위요인이 3.26으로 자기방어적 양가성 변인 2.8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정서표현에 갈등을 느끼는

동기로 자기-방어적인 이유보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배려하는 경향이 더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의 하위변인들을 살펴보면 협력 및 절충전략(3.46), 회피(3.20), 지배(3.09), 양보(2.98)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친구들과의 갈등상황에서 협력 및 절충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향이 더 많으며, 양보 전략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의 상관관계

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의 상관관계 (n=514)

변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			
	1. 부 개방형	2. 부 문제형	3. 모 개방형	4. 모 문제형	5. 정서표현갈등	6. 자기 방어적	7. 관계 관여적	8. 협력 및 절충	9. 회피	10. 지배	11. 양보
1	1										
2	-.50**	1									
3	.52**	-.27**	1								
4	-.30**	.54**	-.55**	1							
5	-.16**	.37**	-.11*	.33**	1						
6	-.23**	.42**	-.21**	.41**	.94**	1					
7	.03	.14**	.10*	.06	.76**	.48**	1				
8	.28**	-.10*	.32**	-.13**	.10*	-.02	.29**	1			
9	.15**	.03	.17**	-.01	.32**	.25**	.35**	.45**	1		
10	.20**	.04	.16**	-.12**	.08	.03	.14**	.35**	.15**	1	
11	-.02	.17**	.10*	.08	.23**	.20**	.20**	.31**	.40**	.05	1

* $p < .05$, ** $p < .01$

첫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정서표현갈등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표현갈등은 부-문제형 의사소통과 정적상관($r=.37, p<.01$), 모-문제형 의사소통과도 정적상관($r=.33, p<.01$)을 보이고, 부-개방형과는 부적상관($r=-.16, p<.01$), 모-개방형과도 부적상관($r=-.11, p<.05$)을 나타내었다. 정서표현갈등의 하위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부-문제형 의사소통과 정적상관($r=.42, p<.01$)을 모-문제형과도 정적상관($r=.41, p<.01$)을 나타냈고, 부-개방형과 부적상관($r=-.23, p<.01$)을, 모-개방형과도 부적상관($r=-.21, p<.01$)을 나타냈다. 정서표현갈등의 하위요인인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부-문제형($r=.14, p<.01$), 모-개방형과 낮은 상관($r=.10, p<.05$)을 나타냈고, 모-문제형과 부-개방형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정서를 표현하는데 갈등을 더 많이 겪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정서를 표현하는데 갈등을 겪는 경향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협력 및 절충전략은 모-개방형 의사소통과 정적상관($r=.32, p<.01$), 부-개방형 의사소통과도 정적상관($r=.28, p<.01$)을 나타내고 있으나, 모-문제형 의사소통($r=-.13, p<.01$), 부-문제형 의사소통과는 낮지만 부적상관($r=-.10, p<.05$)을 보이고 있다. 회피전략은 모-개방형 의사소통과 정적상관($r=.17, p<.01$), 부-개방형과($r=.15, p<.01$)도 약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부-문제형, 모-문제형 의사소통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전략은 부-개방형($r=.20, p<.01$), 모-개방형($r=.16, p<.01$) 순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모-문제형($r=-.12, p<.01$)과는 부적상관, 부-문제형 의사소통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보전략은 부-문제형 의사소통($r=.17, p<.01$), 모-개방형과($r=.10, p<.05$)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부-개방형, 모-문제형 의사소통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친구들과의 갈등상황에서 협력하고 절충하는 전략을 더 사용하며, 부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친구들과의 갈등상황에서 협력, 절충하는 경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회피전략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사용하고 있는 전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회피전략이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정적 상관을 나타

낸 것은 회피가 근본적으로는 갈등을 해결하는 건설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욕구가 잠재된 행동으로(배선영, 2000), 긍정적인 갈등해결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자녀들은 부모와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갈등상황에서 상호 호혜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경우, 청소년기 자녀의 대인관계기술이나 사회성이 발달하고, 갈등상황을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정서표현갈등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정서표현갈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부개방형, 부문제형, 모개방형, 모문제형)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정서표현갈등의 하위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 관계관여적 양가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 7, 표 8에 제시하였다. 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독립변인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고자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보았다. 표 7, 표 8에서 공차한계는 .714와 .925이고 VIF는 1.08에서 1.40사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기본 가정(공차한계 판단 기준치는 0.1이하, VIF는 10이상)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미치는 영향

표 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정서표현갈등(자기방어적 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514)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p	통계량	
	B	SE	β			공차	VIF
(상수)	1.574	.126		12.444	.000		
1단계	부-문제형	.504	.049	.415	10.335	.000	1.000 1.000
R ² =.173, adj.R ² =.171, F(p)=106.81(.000)							
(상수)	1.266	.134		9.427	.000		
2단계	부-문제형	.334	.056	.275	5.958	.000	.714 1.401
	모-문제형	.294	.052	.262	5.670	.000	.714 1.401
R ² =.222, adj.R ² =.219, F(p)=72.729(.000)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변인은 부-문제형, 모-문제형 의사소통 두 변인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문제형 의사소통의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대한 설명력은 17.1%(adj.R²=.171, $p < .00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모-문제형 의사소통이 추가되면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대한 설명력은 21.9%(adj.R²=.219, $p < .001$)로 증가되어 모-문제형 의사소통 투입 전보다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대해 4.8%정도 더 설명해주고 있다. 이는 부-문제형, 모-문제형 의사소통이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며 부-문제형($\beta = .28$, $p < .001$), 모-문제형 의사소통($\beta = .26$, $p < .01$)순으로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형일수록 자기방어적인 동기 즉, 돌아올 배척이나 복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동기로 정서표현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관계관여적 양가성에 미치는 영향

표 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정서표현갈등(관계관여적 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514)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p	통계량	
	B	SE	β			공차	VIF
(상수)	2.874	.122		23.609	.000		
1단계	부-문제형	.153	.047	.143	3.260	.001	1.000 1.000
R ² =.020, adj.R ² =.018, F(p)=10.628(.001)							
(상수)	2.313	.205		11.295	.000		
2단계	부-문제형	.198	.048	.184	4.097	.000	.925 1.081
	모-개방형	.121	.036	.153	3.389	.001	.925 1.081
R ² =.042, adj.R ² =.038, F(p)=11.165(.000)							

관계관여적 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변인은 부-문제형, 모-개방형 의사소통 두 변인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문제형 의사소통이 관계관여적 양가성에 대한 설명력은 1.8%(adj.R²=.018, $p < .0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모-개방형 의사소통이 추가되면서 관계관여적 양가성에 대한 설명력은 3.8%(adj.R²=.038, $p < .001$)로 증가되어 모-개방형 의사소통 투입 전보다 관계관여적 양가성에 대해 2.0%정도 더 설명해주고 있다. 이는 부-문제형, 모-개방형 의사소통이 관계관여적 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며 부-문제형($\beta = .18$, $p < .001$), 모-개방형 의사소통($\beta = .15$, $p < .01$)순으로 관계관여적 양가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버지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관계관여적인 동기로 정서표현갈등을 겪게 되고 또한 어머니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관계관여적인 정서표현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표 7과 표 8에 나타난 결과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정서표현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문제형 의사소통이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 갈등하는 동기로 자기방어적이든 관계관여적이든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기방어적 양가성에는 모-문제형이, 관계관여적 양가성에는 모-개방형 의사소통이 설명력을 더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형일수록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이 더 많아지고

심리적인 불편함을 가지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모-개방형 의사소통이 관계관여적인 정서표현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어머니와의 개방적인 대화가 자녀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자하는 동기로 정서표현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부개방형, 부문제형, 모개방형, 모문제형)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요인인 협력 및 절충, 회피, 지배, 양보전략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9에서 표 12에 제시하였다. 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독립변인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고자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보았다. 표 9부터 표 12에서 공차한계는 .556에서 .925이고 VIF는 1.08에서 1.79사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기본 가정(공차한계 판단 기준치는 0.1이하, VIF는 10이상)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협력 및 절충전략에 미치는 영향

표 9.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협력 및 절충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514)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p	통계량	
	B	SE	β			공차	VIF
(상수)	2.556	.123		20.821	.000		
1단계	모-개방형	.244	.032	.316	7.538	.000	1.000 1.000
R ² =.100, adj.R ² =.098, F(p)=56.824(.000)							
(상수)	2.376	.134		17.699	.000		
2단계	모-개방형	.182	.038	.236	4.845	.000	.729 1.371
	부-개방형	.123	.039	.154	3.170	.002	.729 1.371
R ² =.117, adj.R ² =.114, F(p)=33.940(.000)							

위의 표 9에서 협력 및 절충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모-개방형, 부-개방형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먼저, 모-개방형 의사소통의 협력 및 절충전략에 대한 설명력은 9.8%(adj.R²=.098, p<.00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개방형 의사소통이 추가되면서 협력 및 절충전략에 대한 설명력은 11.4%(adj.R²=.114, p<.001)로 증가되어 부-개방형 변인 투입 전보다 협력 및 절충전략에 대해 1.6%정도 더 설명해주고 있다. 이는 모-개방형, 부-개방형이 협력 및 절충전략에 영향을 미치며 모-개방형(β =.24, p<.001), 부-개방형(β =.15, p<.01)순으로 협력 및 절충전략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갈등해결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청소년기 자녀들이 친구들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서로 수용하면서 관심을 조절하고 배려하는 해결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회피전략에 미치는 영향

표 10.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회피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n=514)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p	통계량		
	B	SE	β			공차	VIF	
(상수)	2.728	.125		21.868	.000			
1단계	모-개방형	.127	.033	.168	3.853	.000	1.000	1.000
R ² =.028, adj.R ² =.026, F(p)=14.842(.000)								
(상수)	2.245	.239		9.378	.000			
2단계	모-개방형	.178	.039	.236	4.529	.000	.693	1.443
	모-문제형	.117	.049	.123	2.361	.019	.693	1.443
R ² =.039, adj.R ² =.035, F(p)=10.274(.000)								

위의 표 10에서 회피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모-개방형, 모-문제형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먼저, 모-개방형 의사소통의 회피전

략에 대한 설명력은 2.6%(adj.R²=.026, $p < .00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모-문제형 변인이 추가되면서 회피전략에 대한 설명력은 3.5%(adj.R²=.035, $p < .001$)로 모-문제형 변인 투입 전보다 회피전략에 대해 약 0.9% 정도 더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개방형, 모-문제형이 회피전략에 영향을 미치며 모-개방형($\beta = .24$, $p < .001$), 모-문제형($\beta = .12$, $p < .05$)순으로 회피전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회피전략이 모-개방형, 모-문제형 의사소통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갈등해결 전략으로 여겨진다.

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지배전략에 미치는 영향

표 1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지배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n=514)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통계량		
	B	SE	β			공차	VIF	
1단계	(상수)	2.167	.108		24.204	.000		
	부-개방형	.143	.032	.195	4.507	.000	1.000	1.000
	R ² =.038, adj.R ² =.036, F(p)=20.311(.000)							
2단계	(상수)	2.035	.170		12.006	.000		
	부-개방형	.186	.033	.255	5.703	.000	.909	1.100
	모-문제형	.175	.040	.197	4.404	.000	.909	1.100
R ² =.073, adj.R ² =.070, F(p)=20.219(.000)								
3단계	(상수)	1.389	.223		6.219	.000		
	부-개방형	.117	.036	.160	3.263	.001	.729	1.372
	모-문제형	.269	.045	.303	6.032	.000	.693	1.444
	모-개방형	.172	.040	.244	4.347	.000	.556	1.799
R ² =.106, adj.R ² =.101, F(p)=20.251(.000)								

위의 표 11에서 지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부-개방형, 모-문제형, 모-개방형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개방형 의사소통의 지배전략에 대한 설명력은 3.6%(adj.R²=.036, $p < .00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모-문

제형 변인이 추가되면서 지배전략에 대한 설명력은 7.0%(adj.R²=.070, $p < .001$)로 모-문제형 변인 투입 전보다 약 3.4% 정도 더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모-개방형 변인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은 10.1%(adj.R²=.101, $p < .001$)로, 이 변인의 투입 전보다 약 3.1% 정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개방형, 모-문제형, 모-개방형이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요인인 지배전략에 영향을 미치며 모-문제형($\beta = .30$, $p < .001$), 모-개방형($\beta = .24$, $p < .001$), 부-개방형($\beta = .16$, $p < .01$)순으로 지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양보전략에 미치는 영향

표 1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양보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n=514)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통계량		
	B	SE	β			공차	VIF	
(상수)	2.521	.123		20.471	.000			
1단계	부-문제형	.181	.047	.166	3.809	.000	1.000	1.000
R ² =.028, adj.R ² =.026, F(p)=14.508(.000)								
(상수)	1.926	.207		9.306	.000			
2단계	부-문제형	.228	.049	.210	4.681	.000	.925	1.081
	모-개방형	.128	.036	.159	3.559	.000	.925	1.081
R ² =.051, adj.R ² =.047, F(p)=13.752(.000)								

위의 표 12에서 양보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부-문제형, 모-개방형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문제형 의사소통의 양보전략에 대한 설명력은 2.6%(adj.R²=.026, $p < .00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모-개방형 변인이 추가되면서 양보전략에 대한 설명력은 4.7%(adj.R²=.047, $p < .001$)로 모-개방형 변인 투입 전보다 양보전략에 대해 2.1% 정도 더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문제형, 모-개방형이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요인인 양보전략에 영향을 미치며 부-문제형($\beta = .21$, $p < .001$), 모-개방형 의사소통($\beta = .16$, $p < .001$)순으로

양보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아버지의 문제형 의사소통이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맞추는 태도인 양보전략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표 9에서 표 12에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청소년기 자녀들의 사회성 및 대인관계 기술에 아버지 보다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상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친구 간 갈등해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자녀와의 대화에 관심을 갖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부모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하위 요인들이 정서표현갈등과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과정에서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정서표현갈등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의 정서표현성이 타고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을 때(신자은, 2002),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정서표현갈등은 부-문제형 의사소통과 정적상관($r=.37, p<.01$), 모-문제형 의사소통과도 정적상관($r=.33, p<.01$)을 보이고, 부-개방형과는 부적상관($-.16, p<.01$), 모-개방형과도 부적상관($r=-.11, p<.01$)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형일수록 청소년기 자녀가 정서를 표현하는데 갈등을 더 많이 겪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정서표현갈등을 겪는 경향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이라고 지각한 집단이 정서표현갈등을 더 많이 일으킨다는 조수경(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부모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정서표현갈등이 낮아진다는 노지영(2009)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한상희(2005)의 부모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아동·청소년은 정서표현갈등을 더 적게 경험한다는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며 부모의 상위정서양육방식이 아동의 정서표현갈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서리(2007)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정서표현이 의사소통의 하나로 자녀들이 처음으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데 두려움과 불편함을 갖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청소년기 자녀들이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건강한

정서표현을 통한 관계맺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협력 및 절충전략은 모-개방형 의사소통과 정적상관($r=.32, p<.01$), 부-개방형 의사소통과도 정적상관($r=.28, p<.01$)을 나타내고 있으나, 모-문제형 의사소통($r=-.13, p<.01$), 부-문제형 의사소통과는 낮지만 부적상관($r=-.10, p<.05$)을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갈등상황에서 협력하고 절충하는 전략으로 갈등을 해결하지만,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형일수록 갈등상황에서 협력 및 절충하는 경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자녀들이 친구와의 갈등에서 협력 및 절충전략을 사용한다는 장영수(2008)의 연구결과와 그리고 아동이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긍정적인 또래관계기술을 많이 사용한다는 조경은(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문제 상황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추구하게 하며(조하나, 2006), 유능한 대인관계기술을 갖게 하고(노옥경, 2003),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행동이 갈등상황에서 협동적이고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발달시킨다는 연구결과(Maccoby, 1980)를 지지한다. 또한 부모-애착안정성과 협력 및 절충의 높은 상관은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청소년일수록 친구간 갈등상황에서 양자의 관심사를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김지현(200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수용 받는다고 지각 하게 되면 친사회적 행동도 발달되어 친구간의 갈등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들이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갈등해결을 통해 친밀한 친구관계를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강조되고 구체적 방안이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정서표현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중 부-문제형, 모-문제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정서표현

갈등의 하위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영향(21.9%)을 미치고, 관계관여적 양가성에는 부-문제형, 모-개방형 의사소통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문제형 의사소통은 두 하위요인 모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내면적인 갈등을 많이 겪으며 모의 경우보다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내면적 갈등을 겪게 하는 성향에 더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는 신자은(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정서표현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조수경(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형일수록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높아짐으로써 정서표현에 갈등을 겪고 심리적인 불편함을 가지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정에서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모로 하여금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데 두려움과 불편함을 갖는 청소년에게 건강한 정서표현을 통한 관계맺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자기방어적 양가성’에는 부모의 문제형 의사소통만이 영향을 주어 정서표현갈등을 많이 겪게 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관계관여적 양가성’에는 어머니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서표현갈등이 전반적으로 부적응적 개인차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억제하는 성향으로 한국 문화에서 적응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최해연(2007)의 연구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고 타인을 배려하고자하는 동기로 정서표현갈등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관계를 위해 능동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참기로 결정한 것이며,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인 통제행동 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긍정적인 재해석과 같은 조절과정을 가질 수 있다는 엄정은(2010)의 연구를 고려해보게 한다. 더불어 최해연(2007)은 두 요인 사이의 높은 상관성이 단일요인을 의미하기보다 두 요인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설명적 관계-한 요인이 다른 요인을 설명하는 연결성의 증거라고 보면서 관계관여적 속성에 자기방어적인 측면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

였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조심하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 방어적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 두 하위요인은 정서표현갈등을 겪지만 그 동기나 신념 등 속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 중 부-개방형, 모-개방형은 협력 및 절충 전략에 영향(11.4%)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들의 친구 간 갈등상황에서 협력하고 절충하는 전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협력 및 절충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정남선(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부모가 자녀를 성취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로 양육할수록 절충 및 협력전략을 사용한다는 정미현(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회피전략이 모-개방형, 모-문제형 의사소통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갈등해결전략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회피전략에 영향을 더 미친다는 장영수(2008)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한편, 회피전략이 부-개방형, 모-개방형 의사소통의 영향을 받는다는 류승민(2010)의 연구결과와 부분일치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회피와 양보전략을 사용한다는 정선영(2001)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어머니의 문제형 의사소통 또한 회피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갈등을 회피하는 행동자체가 갈등으로부터 물러나거나 이를 피하는 것으로 갈등해소에 있어 근본적으로 적응적인 전략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회피적 전략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게 할 수도 있지만, 수동적인 태도로써 갈등상황을 피하게 하는 태도를 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리고 부-개방형, 모-개방형이 지배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아버지가 자녀의 의견을 지나치게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개방형 의사소통이 오히려 갈등상황에서 지배적인 경향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장영수(2008)의 연구결

과와 부분 일치한다. 또한 모-문제형이 지배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부정적이고 패쇄적인 의사소통은 아동의 정서적 욕구를 좌절시켜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정세용(1995)의 연구결과와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와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지각할수록 자녀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보다 자신의 관심사만 우선시하는 지배전략을 사용한다는 류승민(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양보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녀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아버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맞추는 태도인 양보전략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머니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양보전략에 대한 영향은 양보전략이 소극적인 태도이지만 보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다.

한편, 갈등해결전략의 협력 및 절충전략은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회피, 지배, 양보 전략은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회피, 지배, 양보전략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엇갈려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회피'전략에 대해 배선영(2000)은 친구의 지원과 정적상관을 보여 갈등을 회피하는 행동자체가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시키는 건설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상호적 친구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잠재된 행동으로 협력 및 절충, 회피, 양보전략을 사용하는 아동은 친구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반면, 안경숙(2001)은 회피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은 친밀하고 깊은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피상적으로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개방형, 모-문제형 의사소통이 회피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이 어머니가 성취적인 양육을 한다고 지각할수록, 또한 비합리적인 양육을 한다고 지각할수록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욕구충족에 관심이 낮은 회피전략을 사용한다는 정미현(2003)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한편 모-개방형 의사소통이 회피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회피와 양보전략을 사용한다는 정선영(2001)의 연구와, 모-문제형 의사소통이 회피전략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김표선

(2004)의 무시아는 회피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교제의 즐거움, 도움이 낮을수록 회피전략이나 지배전략을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회피, 지배, 양보전략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엇갈려서 나타나 부모의 개방형과 문제형 의사소통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부모와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되어질 필요가 있겠다. 한편 청소년들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서로 정서를 공유하며 자기 개방을 통해 친밀감을 갖게 된다. 이 때, 타인에게 자기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게 되는데,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 어려워하거나 불편을 느끼며 갈등하는 청소년에게 정서표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인식시킴으로써 솔직하고 건강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문제 중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들 중 청소년, 특히 중학생들은 부모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시기이다. 가정 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정서표현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온바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탐색해보고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훈련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활한 친구관계 형성에 필요한 긍정적인 갈등해결방법을 체험하여 또래관계에서의 지지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청소년기 자녀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나 문제에 대하여 부모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공감해 준다면, 부모-자녀 간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증진될 수 있으며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고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부모-자녀 간 문제형 의사소통은 정서표현갈등과 정적인 상관을,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형일수록 자녀의 정서표현갈등이 더 많아지고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정서표현갈등이 감

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해결전략에 있어서는 부모-자녀 간 개방형의사소통이 협력 및 절충과 정적상관을 부모-문제형 의사소통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갈등상황에서 친구들과 협력하고 절충하는 전략을 사용하며, 부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친구들과의 갈등상황에서 협력, 절충하는 경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자녀 간 문제형 의사소통이 자녀의 정서표현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부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가 정서표현에 대해 더 많이 갈등하게 된다. 한편 갈등해결전략에 대해서는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친구 간 갈등상황에서 협력 및 절충의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기 중에서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지역은 제주로 제한되어 있다. 정서표현갈등과 갈등해결전략은 인간의 발달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중학생 및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지, 발달단계별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을 교사, 부모, 친구들의 관찰자 보고식 질문지를 추가하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객관적인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정서표현갈등의 하위요인 중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그 속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의 연구들이 정서표현갈등에 대한 부적응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면, 한국 문화에서 정서표현갈등이 개인의 적응에 있어서 의미와 역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다 많은 연구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강미란(201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서표현성, 또래관계 및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소영(2009).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애(2007).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과 사회적 기술 및 낙관성이 청소년의 외톨이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지은(2003).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진희(2007).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표현성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원(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1995). **정서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경화(198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200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성향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아(2005).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 자아탄력성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주(2002). **유아의 정서지능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연(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적응**.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송이(2001). **또래 지위와 친구 관계에 따른 아동의 또래 갈등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우석(2004). **정서표현성, 자아방어기제 및 대처방식간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자 역(1984). **적응심리**. 서울: 정민사.
- 김지현(2002).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및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표선(2004). **아동의 또래지위와 우정의 질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화연(2012). **청소년의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성향(199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옥경(2003).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과 자녀의 대인관계 기술**.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지영(2009).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반응에 따른 자녀의 정서표현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승민(201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공감능력 및 친구간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준범(2001). **분노의 다차원적 특성과 신체 건강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유정(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희(2005). **부와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금남(20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 차이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9집, 95-106.
- 박시현(2003).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및 가족체계 유형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2011).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친구관계의 질간**

- 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선영(2000). 친구관계 질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윤미(2005). 부와 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영진(2005). 정서표현갈등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자은(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완벽주의 및 정서표현갈등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영(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 애착수준, 유능감 수준 및 교우관계의 질적 특성간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희옥, 김영미(2000).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및 교내외 활동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1(4), 159-175.
- 안경숙(2001). 초등학생의 친한 친구 사귀기 과정 : 근거이론 접근방법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희애(2006). 애착과 정서표현갈등에 따른 대인관계 특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정은(2010).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영미(2003).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주현(2000).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과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과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귀선(2002).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조절양식과 효과성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서리(2010). 부모 상위정서 양육방식, 아동의 정서표현 갈등 및 사회적 기술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2002).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중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2004). **중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정서조절간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서은국(2009). 정서억제와 주관적 안녕감 : 문화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31-146.
- 이은혜, 고윤주, 오원경(2000). 청소년기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지원 및 갈등해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105-121.
-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1(1), 117-140.
- 이진용(1990).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수(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자아탄력성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정미(2005).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정서지능 및 사회적 유능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남선(2007).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자(1995). 공감과 사회적 평가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 아동학회지**, 16(2), 97-112.
- 정문자(2003).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 정미현(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영(2001).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세용(1994).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 국민학생의 지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화(200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 또래관계의 질 및 학교적응도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경은(200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규칙 및 아동의 내외통제성이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공호(2003). 문화성향과 통제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2), 85-106.
- 조수경(2007).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사회적지지 및 정서표현갈등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경(2009).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사회적지지 및 정서표현갈등간의 관계. **인간이해** 30(1), p.61-79.
- 조하나(2006).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아동의 우울과의 관계**.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유진, 유계숙(200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이 교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59-75.
- 최태진(2006). 청소년 문화성향에 따른 교우간 갈등해결 전략. **한국청소년연구**, 17(1), 5-31.
- 최상진(1997).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 **현대심리학의 이해**. 학문사.
- 최상진(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2001). 인고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21-38.
- 최해연(2007).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과 억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해연, 민경환(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1(4), 71-89
- 하 정(1997). **정서표현성향과 스트레스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정서, 사고, 행동영역의 통합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희(2005).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대인불안 및 우울과의 관계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정원(1997). **정서 표현성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원(2003). **아동의 정서표현 의도와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nes, H. L.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eaubien, C. O. (1970).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Blake, R. R. & Mouton, J. S. (1964). *The managerial grid*. Texas: Gulf Publishing.
- Buck, R. W. (1984). *The communication of emotion*. New York: Guilford.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47-959.
- Gordon, T. (1975).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 Gross, J. J. & Levenson, R. W. (1997). Hiding feeling : The acute effects of inhibiting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95-103.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Maccoby, E. E. (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A development account. *American Psychologist*, 45, 513-520.
- Mongraine, M. & Vettese, L.C. (2003).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545-555.
- Pennebaker, J. W. (1985).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somatic

- disease: Exploring the roles of behavioral inhibition, obsession, and confiding. *Canadian Psychology*, 26, 82-95.
- Pollard, A. (1985). *The social world of the Primary school*, London: Holt, Rinehart & Winston.
- Rahim, M. A. (1983). A measure of style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 368-379.
- Satir, V. (1972). *People Making*.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 Inc.
- Satir, V. (1983).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 Inc.
- Selman, R. 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es*. New York: Academic Press.

<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Communication with Parent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Kim, Eun ju

Studying Counseling Psychology
a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Park, Jung hwan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explore how communication with parents as an environmental factor affect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To achieve the purpose, this work set up the following study issues:

Study issue 1: How i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Study issue 2: How does parent-child communication affect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To address the above issues, this work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parent-child communicat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with 568 male and female 1st year students at five middle schools in Jeju. Among the questionnaire copies, 514 copi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For measurement tools of this work,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PACI)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scale developed by Barnes and Olson(1982) and translated by Heh-young Min(1990) was used to examine parent-child communicat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Korea(AEQ-K) validated by Hae-yeon Choi and Gyeong-hwan Min(2007) was used to examin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Scale of Eun-hae Lee, Yoon-ju Goh, and Won-jeong(2000) was used to measure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For data analysis, SPSS for Windows 18.0 was used to conduct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Problematic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open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addition, open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cooperation and compromise strategy among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for friends, and problematic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cooperation and compromise strategy.

Second, parent-child communication significantly affecte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Paternal-problematic and maternal-problematic communication significantly affected self-defensive ambivalence, the sub factor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aternal-problematic and maternal-open communication significantly affected relation-involvement ambivalence, the sub factor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aternal-open and maternal-open communication positively affected cooperation and conflict strategy, the sub factor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parent-child communication was highly related to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also affected them. Therefore, to create healthy psychological stability of children and positive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between friends,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open parent-child communication which helps to understand and accept children's positions sufficiently and to use a substantial parent education program.

부 록

부록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설문지	56
부록2. 정서표현갈등 설문지	58
부록3.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설문지	59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평소 부모님과 의사소통하는 방식,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익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문항을 읽으신 후 평소 여러분의 생각이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귀중한 연구 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되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2월

연구자: 김은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석사과정)

지도교수: 박정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 먼저 아래 사항을 기록해 주십시오

1. ()중학교 ()학년 ()반
2. 성별: 남(), 여()

[질문지 1] 다음 문항은 여러분과 아버지와의 대화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와 대화할 때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주저함 없이 아버지께 내 주장을 이야기한다.	1	2	3	4	5
2	나는 때때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다.	1	2	3	4	5
3	아버지는 항상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신다.	1	2	3	4	5
4	나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요구하기가 두렵다.	1	2	3	4	5
5	아버지는 내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아버지는 나에게 묻지 않고도 내 느낌이 어떤가를 아신다.	1	2	3	4	5
7	나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방식에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8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다.	1	2	3	4	5
9	나는 아버지께 숨김없이 애정을 표시한다.	1	2	3	4	5
10	아버지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종종 아버지께 침묵을 지킨다.	1	2	3	4	5
11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1	2	3	4	5
12	아버지와 대화할 때 나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3	나의 질문에 대해 아버지는 정직하게 대답해 주신다.	1	2	3	4	5
14	아버지는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1	2	3	4	5
15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화제 거리가 있다.	1	2	3	4	5
16	아버지와 함께 문제를 의논하기가 쉽다.	1	2	3	4	5
17	아버지께 나의 모든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기 쉽다.	1	2	3	4	5
18	아버지는 나에게 성가시도록 잔소리를 하신다.	1	2	3	4	5
19	아버지는 나에게 화가 나셨을 때 나를 모욕(욕을 하거나 경멸하는 태도) 한다.	1	2	3	4	5
20	어떤 것에 관하여 내가 실제로 느끼는 바를 아버지께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	1	2	3	4	5

[질문지 2] 다음 문항은 여러분과 어머니와의 대화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와 대화할 때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주저함 없이 어머니께 내 주장을 이야기한다.	1	2	3	4	5
2	나는 때때로 어머니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다.	1	2	3	4	5
3	어머니는 항상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신다.	1	2	3	4	5
4	나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머니께 요구하기가 두렵다.	1	2	3	4	5
5	어머니는 내게 말씀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어머니는 나에게 묻지 않고도 내 느낌이 어떤가를 아신다.	1	2	3	4	5
7	나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방식에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8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있다.	1	2	3	4	5
9	나는 어머니께 숨김없이 애정을 표시한다.	1	2	3	4	5
10	어머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종종 어머니께 침묵을 지킨다.	1	2	3	4	5
11	어머니께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1	2	3	4	5
12	어머니와 대화할 때 나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3	나의 질문에 대해 어머니는 정직하게 대답해 주신다.	1	2	3	4	5
14	어머니는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1	2	3	4	5
15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화제 거리가 있다.	1	2	3	4	5
16	어머니와 함께 문제를 의논하기가 쉽다.	1	2	3	4	5
17	어머니께 나의 모든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기 쉽다.	1	2	3	4	5
18	어머니는 나에게 성가시도록 잔소리를 하신다.	1	2	3	4	5
19	어머니는 나에게 화가 나셨을 때 나를 모욕(욕을 하거나 경멸하는 태도) 한다.	1	2	3	4	5
20	어떤 것에 관하여 내가 실제로 느끼는 바를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	1	2	3	4	5

[질문지 3]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정서표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과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렵다.	1	2	3	4	5
2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로 인해 내 자신이 당황하게 되거나 상처받게 될까 걱정된다.	1	2	3	4	5
3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1	2	3	4	5
4	종종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없다.	1	2	3	4	5
5	내 문제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한다.	1	2	3	4	5
6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 적당한 말을 찾기가 어렵다.	1	2	3	4	5
7	종종 내가 느끼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웬지 망설여진다.	1	2	3	4	5
8	비록 가까운 사람들에게 온당한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의 부정적인 느낌을 모두 드러내지 않으려한다.	1	2	3	4	5
9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지 못 한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1	2	3	4	5
10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감정들을 감춰두려 하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1	2	3	4	5
11	정서적 반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다.	1	2	3	4	5
12	내가 그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했더라면 하고 회상할 때가 있다.	1	2	3	4	5
13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4	5
14	나의 애정을 좀 더 겉으로 표현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 걱정된다.	1	2	3	4	5
15	나는 화를 참으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1	2	3	4	5
16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1	2	3	4	5
17	누군가 나의 신경을 건드릴 때, 느끼는 바를 말하고 싶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려 한다.	1	2	3	4	5
18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조차 나는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한다.	1	2	3	4	5
19	내가 상처받고 있는 것을 이성친구가 알았으면 하면서도 질투심을 억누르려 한다.	1	2	3	4	5
20	화를 낼까 하다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	1	2	3	4	5
21	때때로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싶더라도 나는 언제나 기분을 다스리려 노력한다.	1	2	3	4	5

[질문지 4] 다음 문항은 여러분이 가장 친한 동성 친구와 의견충돌이 생기거나 다를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에 “OO” 을 가장 친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라 생각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서로 동의하지 않은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덮어둔다.	1	2	3	4	5
2	나는 문제해결의 절충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주장대로 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4	나는 우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내 생각을 OO에게 맞춘다.	1	2	3	4	5
5	나는 우리 각자가 원하는 것의 일부는 양보하는 선에서 해결책을 찾는다.	1	2	3	4	5
6	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사를 공개하려고 한다.	1	2	3	4	5
7	우리 사이에 견해차가 있을 때, 나는 OO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굳힌다.	1	2	3	4	5
8	나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는다.	1	2	3	4	5
9	나는 우리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OO와 협력한다.	1	2	3	4	5
10	나는 OO가 나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고 애쓴다.	1	2	3	4	5
11	처음에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결국 OO가 원하는 쪽으로 나의 생각을 바꾼다.	1	2	3	4	5
12	나는 우리 사이에 불쾌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한다.	1	2	3	4	5
13	나는 나의 주장을 강력히 밀고 나간다.	1	2	3	4	5
14	OO가 자신의 입장에 대해 확고하다면, 나는 OO가 하자는 대로 한다.	1	2	3	4	5
15	나는 의견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1	2	3	4	5
16	나는 나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감사합니다. ^^

여러분이 응답한 설문결과를 알고 싶으신 분은 이메일을 남겨주세요(e-mail:)